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 4월 20일(월)부터 운영 안정화 및 사업 고도화가 필요한 협동조합 모집
- 기존 기능별 지원에서 벗어난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도약 참여 조합당 최대 1천만 원, 고도화 참여 조합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생애주기별(도약·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핵심 기조인 '양적 성장을 넘어선 질적 고도화'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존의 획일적인 기능별 지원에서 벗어나 조합의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은 설립 연차와 성장 수준에 따라 ▲도약 지원(설립 5년 미만)과 ▲고도화 지원(설립 5년 이상)의 투트랙(Two-track) 체계로 운영된다.

① 도약 지원사업

도약 지원사업은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협동조합 3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기업의 존망을 결정짓는 고비)'를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한다. 사전 진단과 함께 인사·회계 등 기초 경영 자문을 제공하며, 연합회 및 선배 조합의 실천 코칭을 연계하여 현장의 노하우가 신생 조합에 직접 전수되도록 한다. 선정된 조합에는 1,000만 원 상당의 기초 경영지원 서비스가 거점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2 고도화 지원사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설립 5년 이상으로 본격적인 규모화(Scale-up)가 필요한 성장기 조합 27개소를 선발한다. 정제된 매출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연합회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 등 신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브랜드 강화 및 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사업 규모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정승국 원장은 “이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기 협동조합의 휴면화를 방지하고, 우수한 모델을 보유한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튼튼한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흥원은 본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내부 운영상 안정화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4월 2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사회적 기업 포털(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진흥원은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고 제5차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수)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5.6.(수)), 천안(5.7.(목)), 경기(5.8.(금)), 서울(5.11.(월))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담당 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성장팀	책임자	팀 장	박정연 (031-697-6950)
		담당자	과 장	노태호 (031-697-6952)

